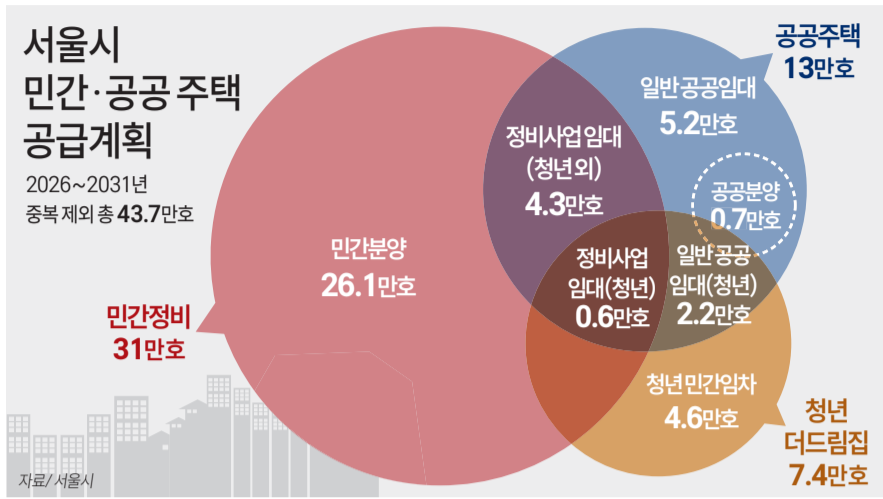


계약금 20% 내고 20년 분할상환...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서울시, 무주택자 주거안정 대책
무이자 대출·월세 지원 대상 확대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로 추가 공급



서울시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한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 무이자 대출과 월세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서울시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시장 정밀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서울시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안

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 3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무주택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아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진 노후 임대단지 3만 3000호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 확보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에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 4000호도 포함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을-하계5단지 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으로 공급되며, 2030년 입

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 공공임대 '미리선발 바로입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처럼 연중 나눠 모집공고를 내는 대신,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괄 시행하고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호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2000년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년대 초과 사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인접 자치구 상황도 함께 분석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

장년 250호, 등록임대 만료가구 250호까지 넓힌다.

◆ 월세 지원과 적금 결합 통장도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어 수혜자가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할 경우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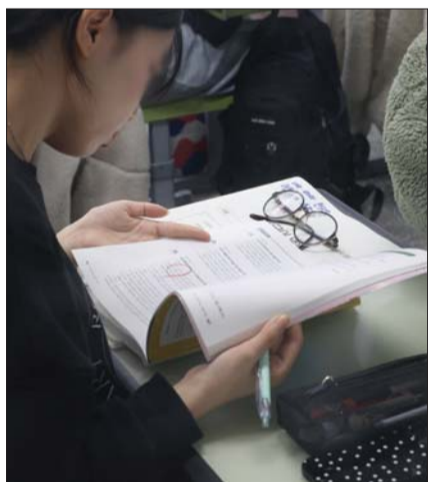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올 수능 11월 19일... 국어·수학 선택 마지막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EBS 간접연계 50% 원칙 유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올해는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으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체제도 이어진다. EBS 간접연계 50%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마지막 선택형 시험으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에 더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응시 때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직업탐구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등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이 가운데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현진 기자

6월 4일 수능 첫 모평... 적정 난이도 유지

사교육식 문제풀이 유리 문항 배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6월 4일 치러진다. 이번 모의평가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간접연계 50% 기조도 이어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전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GM 대규모 투자... 인천, 수출 거점 기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인천광역시시는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GM 본사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생산시설 고도화와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을 포함하고 있

어,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투자로 인천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동시에 첨단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

된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을 포함한 '상생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 효과가 확산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美 국무장관 "NATO 이란사태 비협조 실망... 전쟁 후 재검토할 것"
▲스페인, 미 공동기지 사용 불허에 이어 군용기 영공 통과도 거부 /사진 뉴시스

▲이란, 예멘 후티 반군 통해 홍해 압박...유가 압박 심해질 듯
▲美 82공수사단 중동 도착...이란 겨냥 지상전 압박 강화

▲이란, 쿠웨이트 유조선에 드론 공격...고유가 공감 확산
▲러시아, 일본 겨냥 "가격상한제 국가엔 원유 팔지 않을 것"